



남원소방서, 최첨단 소방차량 3대 전력 배치

남원소방서는 최근 각종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첨단 성능을 갖춘 신규 소방 차량 3대를 일선 현장에 공식 배치해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차량은 F1테크의 CAFS(압축공기 폼 시스템) 중형 소방펌프차 2대와 진우SMC의 '작진불 고가사다리차' 1대로, 총 3대의 최신헌 특수 장비가 일선 센터에 전진 배치되면서 남원 관내 재난 대응 체계가 한 단계 비약적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F1테크 CAFS 중형 펌프 차량은 물과 소화약제에 압축공기를 강제로 혼합해 조밀하고 미세한 거품을 분사하는 최신 소화 시스템을 탑재, 일반 물 분사 방식 대비 소화 효과가 4~5배에 달한다.

작진 불 고가사다리차는 작진 불 메커니즘을 적용해 전개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선이나 장애물이 많은 도심·주막가에서도 정교하게 사다리를 침투시킬 수 있다.

남원소방서는 신규 특수차량의 전진 배치와 함께 대원들을 대상으로 장비 조작 능력 향상 및 고층·농촌 맞춤형 실전 적응 훈련을 강화해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완벽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기센터, 다슬기 125만 마리 요천 방류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다슬기 치패 125만 마리를 급지면·산동면 일원의 요천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다슬기 치패는 섬진강 수계에서 확보한 토종 어미로부터 종자를 받아 육성한 우량 종자로, 방류된 다슬기는 이듬해 4~5월경이면 1.5cm 이상으로 성장해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농기센터는 다슬기 자원량 증대를 위해 최초로 다슬기 치패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류와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통해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어업인 소득 기반 조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 통합건강관리 임상 연구 실시

남원의료원은 20일,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현장에서 배우는 필수 의료, 재택의료, 통합건강관리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한국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가 주관한 이번 연구는 남원의료원과 남원시보건소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 행사에는 간호사 전공자 및 교수,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사회간호, 통합돌봄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심도있게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학교 수업을 잇는 지역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20~21일 '전주다움배움터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허대중)가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결하는 '전주다움배움터' 활동가들의 수업 역량 강화를 돕고 나섰다.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는 20일과 21일 이틀간 '2026 전주다움배움터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전주다움배움터'는 전주 지역이 보유한 생태·문화·역사·예술 등 풍부한 교육 자원을 발굴해 이를 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플랫폼이다.

이곳에 소속된 강사와 활동가들은 전주의 지역자원에 전주의 가치와 비전을 담아낸 콘텐츠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학교와 지역의 다양한 배움터가 함께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나아가 전주에서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고, 전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주다움배움터와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 학년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지역교육 수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배움터 강사와 활동가의 실질적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강의 중심의 연수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기획과 수업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첫날 교육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기획'을 주제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문 분야 교



육활동 기획 △교육자료와 이미지 콘텐츠 제작 △ NotebookLM을 활용한 교육자료 정리와 확장 등에 대한 내용이 실습 중심으로 다뤄졌다.

이어 21일에는 '아동·청소년을 이해하는 힘, 참여를 이끄는 수업'을 주제로 △아동·청소년을 이해하는 힘 △발달과 환경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이해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수업 등 지역교육 활동가들이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업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교육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기획하는 역량과 학생의 발달과 특성을 이해해 자발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향후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교육 자원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군산농기센터, '광평옥2호' 현장실증 수확 연시회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20일 개성면 원아산마을에서 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조식료협회, 익산군산축협, 전북특별자치도, 한우 및 낙농육우 축산단체 관계자와 농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용 옥수수 신품종 광평옥2호 현장실증 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실증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 특화작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재배실증포는 개성면 일원 7.48㎡ 규모의 2모작 재배지로 조성됐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사료용 옥수수 신품종의 특성과 재배·이용기술 소개, 실증농가의 재배사례 발표 및 수확, 곤포 사일리지 조제 현장 시연을 실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광평옥2호'의 생육 및 수확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수확한 옥수수를 활용한 곤포 사일리지 조제 과정을 살펴보고 군산 사료용 옥수수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안정적인 재배·이용을 위한 기술정보를 공유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팔덕파출소·팔덕자율방범대, 강천산 야간개장 순찰

순창경찰서(서장 박삼서) 팔덕파출소는 지난 19일, 피서철 막바지 지역을 찾은 여행객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팔덕자율방범대와 함께 강천산 야간개장 구역을 중심으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순찰은 여름철 늦은밤까지 시원한 피서지를 찾아 강천산 군립공원을 방문하는 여행객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팔덕파출소와 팔덕자율방범대는 이번 협력 순찰을 통해 민·경 협력 치안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피서철이 끝날 때까지 지역 치안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장수군 산서면, 제7회 산서양파축제 내달 5일 개최

장수군은 오는 9월 5일 산서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정영덕)가 산서체육공원 일원에서 산서면의 대표 농산물인 양파를 주제로 '제7회 산서양파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서양파축제'는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산서 양파를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들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행사 운영까지 직접 참여한다.

축제장에서는 저장성이 뛰어난 산서 양파를 활용해 만든 양파고추장과 양파김치, 양파떡볶이 등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 및 먹거리 장터, 공연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국게임과학고, 지식재산 활용 창의적 문화게임콘텐츠 제작 발표회 성료

지식재산처 지정 발명 특허 고등학교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교감 박은규)는 지난 19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결과물을 선보이는 '지식재산(IP) 활용 게임콘텐츠 제작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창안한 독창적인 발명 아이디어와 지식재산(IP)을 게임 기획·프로그래밍·그래픽 기술과 결합해 실질적인 콘텐츠로 구현해내는 교육 과정의 결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프로그래밍 실습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저작권·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까지 아우르는 실무형 프로젝트 기반으로 진행됐다.

발표회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활동으로 개발한 액션, 퍼즐, RPG 등 다양한 게임 프로젝트가 공개됐다. 참가 학생들은 유니티(Unity)와 언리얼(Unreal) 등 상용 엔진을 활용한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 독창적인 세계관과 게임 메커니즘을 시연하며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아이디어의 독창



성 및 차별성 △프로그래밍·그래픽 구현 완성도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연계 가능성 △상용화 잠재력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전북 완주군에 2004년 개교한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게임콘텐츠 제작 등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발명교육과 IT 융합 콘텐츠 개발을 통해 차세대 창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9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010-9845-4113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010-9845-4113	정읍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010-9845-4113	진안지사 010-9845-4113	정읍지사 010-9642-2725	정읍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010-9845-4113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4172-3800	무주지사 010-4172-3800
호지지사 010-9845-9935	팔복지사 253-68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010-6845-9935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